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September 25, 2014 Vol. 452

## 기독교 박해에 대한 침묵 나치 용인하는 것과 같아

美 신학자, 기독교인으로서 악에 맞설 의무 강조



미국의 한 신학자가 “중동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한 침묵은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한 침묵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교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인 한 명인 에릭 메타크사스(Eric Metaxas)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족된 ‘인 디펜스 오브 크리스천스(In Defense of Christians)’의 첫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세계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미국 내 종교자유의 제한에 침묵하면 그것은 나치 정권의 만행에도 침묵을 지켰던 당시 독일 기독교인들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전을 저술하기도 한 메타크사스는 이날 “악에 대한 침묵도 악이다”라고 했던 본회퍼의 말을 인용하며 기독교인들이 박해 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침묵은 악이 더욱 힘을 갖고 퍼져나가게 한다”며, “당시 독일 교회의 민족주의는 나치 정권의 악행이 가능하게 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리스계 미국인인 에릭 메타크사스는 “나는 자라면서 내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 교인이라고 믿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독일인들 역시 자신들이 독일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도 하다고 믿었다”면서 “이는 어리석은 생각

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메타크사스는 “국가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는 다르다”며 “그들이 같다고 생각하면 독일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어야 하지만 이는 국가와 구분된 교회로서의 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도 밝혔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국가나 민족적 정체성에 충성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며, “이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인 다른 교인들의 박해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어느 민족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메타크사스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 문제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정부 정책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제한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추진되어 온 동성결혼 합법화를 포함한 결혼의 재정의와 연방정부의 낙태 시술 지원 문제들을 언급하며, “종교자유가 위협받을 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러한 악에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독교인들이 지금처럼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제31회 HYM 집회에서 김승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남가주 청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남가주 교회 청년 공동체들의 연합과 각성을 통한 성령 부흥을 위해 기획된 ‘제31회 남가주청년연합집회(HYM, 대표 더글라스 김)’가 지난 20일, 21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에서 개최됐다.

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분당 할렐루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승우 목사였다. 미주 청년들의 사정을 잘 아는 1.5세 목회자이면서 남가주사랑의교회를 담임하기도 했던 그의 메시지에 교회 본당을 가

득 체운 청년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Man of Integrity.’ 김승우 목사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 감동을 못 받는 이유는 빌딩이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모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일어서자”고 강조했다.

이 집회를 마치며, 더글라스 김 대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야 6:8의 ‘Here am I. Send Me’와 ‘Young Christian’, ‘Movement’에서 첫 글자를 따 이름 지어진 HYM은 지난 1999년 첫 집회를 시작으로 매년 봄과 가을 한 차례씩 LA동부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활발히 열고 있다.

문소현 기자

## 여성들 위한 “하나님의 프리포즈”

브라에 위치한 다이아몬드감사한인교회(담임 김일권 목사)가 2014 여성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프리포즈”라는 주제로 열리는 여성집회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다.

금번 집회 강사는 김정자 사모(Thanksgiving Church, Buena Park)다. 그는 감사한인교회 커피브레이크 디렉터로 섭기면서 말씀

연구와 기도,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일권 목사는 “이 여성집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축복하심을 맛보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집회는 10월 22일(수)-23일(목) 오후 7:30에 열린다.

주소: 451 W. Lambert Rd.

(#204 & 205) Brea, CA 901748

전화: 909-279-1919

## 어린이 전도의 비법 배운다

어린이전도협회(CEF)에서 10월 한달간 매주 월요일 전도강습회를 연다. 전도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 준다. 또 10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교회학교 교역자와 교사, 부모를 위한 교사대학이 운영된다. 모든 강의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며 전도강습회는 20달러, 교사대학은 170달러의 등록비가 있다. 주소: 3130 Wilshire Bl. #415 Los Angeles, CA 90005 전화: 213-382-1544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 \$40~\$175**  
• 입국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http://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http://www.GGBTS.EDU/KEB)



## 이상훈 목사의 터키 선교여행 일기

##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서” (5)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4월 28일 월요일 아침 일찍 팀 선교사가 순교자 털만 선교사 묘소로 안내했습니다. 묘소를 가는 중 길목에서 폐허가 된 교회터를 보았습니다. 수백년 간 믿음을 지키던 알미니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터였는데 1800년대 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순교했고 교회는 그후 폐허가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교회 안쪽을 들여다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털만 선교사 묘소. 묘비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터키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묘소는 한 알미니안 공동묘지 안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백년 전부터 최근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34세, 어느 분은 더 이른 나이에 간 분들도 있음을 보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털만 선교사 묘소에 오는 도중에 가지엔텝에서부터 터키의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묘소와 교회를 보았습니다. 털만 선교사는 그분들의 순교대열에 마지막 한 분이셨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밀라티아에서 디야르바크르로 가는 길에 푸르른 거대한 물줄기가 나타났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창세기 에덴동산을 흘렀던 물줄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갈대아 우르의 땅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디야르바크르의 첫인상은 큰 도시, 그리고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성벽 줄기가 도시 전체를 두르고 있고, 그 사이에 다문, 율루파, 마르딘, 예니라고 부르는 네 개의 성문을 통해 지금도 차량들이 드나드는 풍광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12미터 성



이상훈 목사  
성광장로교회 담임

벽 위에 올라 타트인 사방의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이곳이 구약시대 고대의 네 제국이었던, 남쪽으로는 앗수르,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동쪽으로는 메대, 서쪽으로는 로마가 보이는 실크로드의 가장 큰 관문인 것, 그 위에 지금 주님의 군사로 내가 서 있다는 것, 저는 선포했습니다. ‘주여! 끊어버린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디야르바크르부터 동남부 쪽은 쿠르드 민족의 터전입니다. 나라는 터키 땅이지만 그들은 터키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세계를 제패했던 매대 페르시아의 후손인 쿠르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가장 구석지고 열악한 지역에서 그 땅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 인터콥선교회 파송 4가정의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마침 팀 모임을 갖고 있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히 이 땅을 축복하는 중보기도로 눈물을 뿐만 아니라, 하비브는 쿠르드어, 터키어는 물론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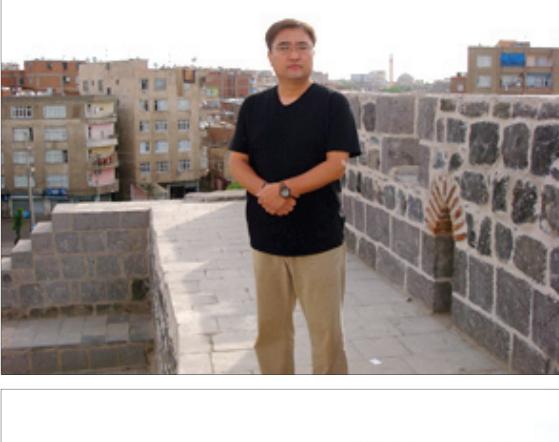
님! 저의 비전은 그 100만 인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마치 한국 여의도의 100만 성도 선교대회처럼 이 땅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들으며 ‘주님! 들으셨지요? 저 부르짖음의 기도를 꼭 들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낙후된 마을 가운데에 위치한 현지인 개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게스트룸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둘무시 시외버스를 타고 바트만이라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바트만에서 한 쿠르드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하비브라는 청년인데 우리를 반갑게 대했습니다. 집으로 안내했는데 부모님, 할머니, 남동생 부부, 여동생들과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비브는 쿠르드어, 터키어는 물론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기는 알라를 믿는다 했습니다. 그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2년 전쯤 하비브가 따로 살고 있을 때, 한국사람 몇 명이 그 동네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했고 하룻밤을 자고 갔다 합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들었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보내온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들은 팀이 되어 전도활동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2년 만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들을 축복하고 한 분 한 분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딱의 막내딸 아홉 살짜리 여자 아이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위에 눌리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에 평안을 얻은 듯 했습니다. 작별하면서 하비브에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고 다시 권했습니다. 대답

을 하는 대신 하비브는 다시 꼭 오라고 재차 청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꼭 오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말로 말고 진짜 오라고 자기 집을 이층으로 지어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오면 2층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하며 제 눈을 보는데 그의 반짝이는 눈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꼭 와서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줘요. 그때 믿을게요”라고요. 저는 꼭 다시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서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실력…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을 통하여 나을, 열방을 향한 복음의 메아리가 사자의 포효처럼 들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깊게 포옹하고 마지막 지점인 마르딘을 향하는 베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린 마르딘에서 경험할 그 엄청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옮겨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최신인 다 들판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칠리 정



P-H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k@gmail.com



P-H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k@gmail.com



P-H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k@gmail.com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케다케어 건강보험** 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P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 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케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겠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베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서비스를 **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 을**

**저장하세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어몬드 바이오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미주복음방송 송정명 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BC

## 미주복음방송 사장에 송정명 목사 취임

###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힘쓰기로 서약

GBC 미주복음방송(AM1190)의 3대 사장에 송정명 목사가 취임했다. 19일 미주복음방송은 송 목사의 취임식과 박신욱 전 사장의 이임식을 거행했다.

송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힘쓰기로 서약했으며 이사장 김영길 목사가 송 목사의 사장 취임을

공포했다. 이어 송 목사에게는 임직 서가, 박신욱 목사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됐다.

취임식을 겸해 드린 예배에서는 송병주 목사가 사회를, 이종용 목사가 기도를, 글로벌메시아찬양중창단이 특별 찬양을, 김영길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맡았다.

신임사장 송 목사는 동양선교교회 수석부목사를 거쳐 미주평안교

회에서 24년 간 담임목사로 섬기다 은퇴했으며, 현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그는 성결대학교 신학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D.Min.)를 취득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LA 대표회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계 연합 사역에도 헌신한 인물이다. 김나래 기자

## 한국교회의 자랑 손양원 목사 일대기 뮤지컬로

### 손동희 권사의 증언들에 근거해 연출 및 각색



창작 뮤지컬 &lt;거룩한 순교 손양원&gt;이 베델한인교회에서 공연됐다.

창작 뮤지컬 <거룩한 순교 손양원>이 20일, 21일 양일간 베델한인교회에서 그 막을 올렸다. 베델한인교회 성극팀의 70여 명 아마추어 배우들이 6개월 간 땀을 흘려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한국 순교자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

의 일대기를 그려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 작품은 손 목사의 친딸인 손동희 권사의 각종 증언들에 근거해 변용득 안수집사가 각색, 연출했다.

1막에서는 손 목사의 애양원 사역과 신사참배 거부, 2막에서는 두

아들의 순교 사건과 원수를 양자로 삼는 사랑, 손 목사의 순교 등을 다루었다.

이 뮤지컬은 아마추어를 뛰어넘는 섬세한 연기와 연출이 돋보였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신앙 유산을 되새기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

성극팀 관계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손 목사님 가족들의 희생을 재현하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되돌아 보고, 믿음 생활의 새로운 좌표를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과거에도 이 교회 성극팀은 뮤지컬 <부활>, <캘리포니아 읍기>, 순교자 주기철 목사를 다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문소현 기자

##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n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리먼트: 1701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3

T.323.737.8888 (한국어 서비스 - 서부안정방법)

T.213.453.6624 (아시아미팅일구)



100g 소비자 가격 \$90 240g 소비자 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3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4개 구입시 \$370

4개 구입시 \$230 5개 구입시 \$450

60포 \$120 9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쇼설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미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 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207L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야 끝이 났다.  
마샬 판사는 고민이 깊은 듯 판결을 연기했다.  
사실 이번 소송이 우리의 승리로 단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우리 상태는 LA시다. 막강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LA시와 상대해서 쌔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주장하겠다는 신념, 우리의 한인 태운 선거구가 결국 하나가 될 것이라는 믿음. 특인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이 떠오른다. “믿음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Faith is taking the first step even when you don't see the whole staircase).”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11:1)”라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소송은 이제 초기 단계이다. 이 소송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그 끝을 알 수 없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무료 변론으로 변호인단 비용은 걱정하지 않지만, 전문가 증인 섭외 등 재판 유지 비용은 여전히 우리의 짐이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현재 상황 속에서 내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가까이에 내 동료들과 그리고 여러 한인 시민단체들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한인타운을 버티게 하고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한인 교회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내 마음이 편해진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캠페인에 한인 교회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나는 끝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첫걸음을 내딛는다. 믿음을 가지고.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가 이전하게 될 남가주 온타리오에 위치한 새 캠퍼스 내 건물 ©ggbts.edu



지난 2012년 열렸던 Korean TEE 미니스트리 10주년 컨퍼런스

## 보수신학의 산실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남가주로 이전

### 온타리오공항 인근으로, 학교명도 남침례회 게이트웨이신학교로 변경 예정

미 남침례회(SBC) 소속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가 캘리포니아 밀밸리(Mill Valley)의 캠퍼스를 매각하고 남가주로 캠퍼스를 이전한다.

벤 스카(Ben M. Skaug)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부총장은 대학사이트에 성명서를 통해 “남가주 LA 동부 온타리오 국제공항 인근에 새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는 서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프 오지(Jeff Iorg)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총장은 신학교 공동체에 매각과 매입 사실을 알리며 “우리는 21세기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시설을 선택했다. 미래의 리더를 형성해 가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매우 탁월한 시설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지 총장은 이어서 새 캠퍼스 명칭으로 “골든게이트”가 적절하지 않기에 “남침례회 게이트웨이 신학교(Gateway Seminary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로 학교명을 변경할 것임을 알렸다.

“새 명칭은 우리의 유산과 연결되며 지리적 지점에서 자유롭고 좀 더 글로벌한 정체성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며 침례교의 차별화된 특성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이 신학교가 들어서게 될 부지에는 6층 건물을 비롯해 건축이 가능한 공간과 7배 더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15만 3천 스퀘어 피트 규모의 6층 건물은 경기 침체로 인해 비어있는 상태며, 건물외관과 전기시설은 모두 갖춰져 있어 인테리어만 하면 된다. 또 7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새 건물을 세워 채플실, 도서관, 사무실, 교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12만 1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밀밸리에 있는 현 캠퍼스와 비교하면, 새 캠퍼스의 건물은 20 퍼센트 더 크며 전체 부지는 2배 정도 더 크다.

총장은 체육관, 수영장,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으나, 그것이 이 학교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로 인한 빛 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저렴한 학비를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1944년 설립된 골든게이트신학교는 현재 북가주 밀밸리, 남가주 브레이, 애리조나 스콧데일, 캐나다 밴쿠버, 콜로라도 덴버에서 5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밀밸리의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는 2016년 6월까지 운영되며, 그때까지 새 캠퍼스 내 건물 인테리어와 사용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안전성 허가를 받아 가을학기부터 새 캠퍼스에서 모든 학사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ggbts.edu>

전화 : (415) 380-1300

한 주디 기자

### 은혜한인교회,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 무료 상영회 마련해

3년째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우수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은혜한인교회 기독영화 감상회에서는 가을을 맞아 크리스천들에게 천국 소망을 되새기고,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은혜한인교회는 9월 27일(토) 저녁 7시에 비전센터 2층 친교실에서 교민들과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다녀온 소년>(Heaven Is for Real)을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은 ‘천국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천국의 소망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나 세상 일에 속박되어 영원히 살게 될 안식처를 잊은 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향해 완곡하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고하는 영화다.

<선 오브 갓>의 관객 수를 넘어 올해 최고의 흥행작으로 자리매김한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은 천국을 보고 온 어린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지난 4월 미국 개봉 당시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8천 4백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이뤄냈다.

한편, 이 영화의 소재가 된 내용은 2011년 책으로 출판돼 아마존 종합 1위, USA 1위를 기록했으며 뉴욕타임스에서는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끊임없이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큰 문제 없이 살아온 소도시 목회자인 토드 버포(그

렉 키니어 분)은 4살 반이 아들 콜튼(코너 코럼 분)이 맹장 파열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서 커다란 의문과 고민에 사로잡힌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콜튼이 수술을 받는 짧은 시간 동안 천국을 다녀왔다고 고백하면서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천국을 말하나 동시에 천국에 대해 의심하는 오늘날 교회의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상영회에서는 한글 자막이 제공되며 시원한 음료수와 커피, 스낵, 핫도그, 샌드위치, 삶은 계란도 준비된다. 상영 후 영화감상문을 작성해 보내면 3명을 선정해 연말에 시상한다.

한 주디 기자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라는 신학연장교육으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도입이 된지 12년이 지났다. TEE는 제자훈련과 신학훈련의 대안적인 형태로써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어 지역교회들이 쉽게 받아들여 시행되어 왔다.

TEE는 1960년대 초 남미에서 현대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랄프 윈터(Ralph Winter) 박사에 의해 제안되었고, 교육학자인 테드 와드(Ted Ward) 박사가 제공한 방법론인 울타리 모델을 사용해 영국인 선교사 토니 바렛(Tony Barratt)과 그의 동역자들이 집대성한 프로그램이다.

학교 건물이 없어도, 교수가 상주하지 않아도, 학교 운영자금이 없어도 신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작되었다. 즉 학습자들의 측면에서는, 도시의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섭기는 지역교회에서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었다.

문의 : 전화 714-350-4211 (한국어), 979-690-9944 (영어)

김나래 기자

### “교회에서 신학연장교육을!”

### KM과 EM 함께 TEE 세미나

Korean TEE 미니스트리(총괄 디렉터 한순진 목사)에서는 그간 수 차례 TEE 세미나를 개최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더 의미가 있는 자리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애나하임에 소재한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는 국제본부(SEAN International) 총재인 테릭 바렛(Terrick Barratt) 목사가 주 강사로 초청되었다. 이 컨퍼런스의 수료자들은 기존 TEE 지도자 세미나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며, TEE의 전체 과정들을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컨퍼런스는 오전 9:30에 시작하여 오후 5:30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KM과 EM 목회자, EM 리더, 선교사, 지역교회 훈련 및 양육 담당자 등이며 부부의 참가를 환영하고 있다.

문의 : 전화 714-350-4211 (한국어), 979-690-9944 (영어)

김나래 기자

### 주사랑선교교회에서 찬양선교음악회

CCM과 워십음악이 기독교 음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송기를 더욱 보급하고자 하는 음악회가 오는 9월 28일 오후 7시 주사랑선교교회(17054 Bixby Ave. Bellflower, CA90706)에서 열린다.

2012년 10월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회를 맞이한 찬양선교음악회에 LA남성선교합창단, LA레이디싱

김나래 기자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 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5년도

학생 모집

[www.mrtsusa.org](http://www.mrtsusa.org)

E-Mail: mrtusa@hotmail.com

학위취득 과정 및  
야간,통신,인터넷, 학생모집 학과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5년 봄학기 교수모집

▶ 비교 종교학 ▶ 성경과 리더십 ▶ 이단 종파

2014년 Fall Semester Time Table  
가을학기 강의 과목

Subjects	Professor
◆ 조직신학(인간론) Systematic Theology III	현연섭 박사 Dr. Youn Sup Hyun
◆ 현대 선교신학 Contemporary Th. Miss	박상목 박사 Dr. Sang Mok Park
◆ 기독교 교육사 Christian Education	임영호 박사 Dr. Yong Ho Yim
◆ 창세기 Genesis	이정수 박사 Dr. Jing Soo Lee
◆ 히브리서 Hebrews	김경수 박사 Dr. Kyung Soo Kim
◆ 기독교 윤리학 Christian Ethics	정승룡 박사 Dr. Joseph S.Jung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 영적 승리를 위한 임마누엘 교회로

여호수아 7:1-15



## 1. 여리고 성 함락의 교훈

여호수아 6장에서 그토록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옛새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수6:2-5)”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믿되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하면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실현해 주시리라 믿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옛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제 칠일에는 하루에 일곱 바퀴를 힘들었겠지만 순종의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어지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고 절대자로 섬기는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한 임마누엘은 믿음과 순종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 2. 여호와의 성물을 도적질한 아간

여호수아 6:17-19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함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셨음에도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은 200 세겔(2280g), 50세겔(570g) 중의 금덩이 하나님을 훔쳐 자기 쳐소의 장막 속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언약 공동체로 맺어진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연대적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놔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 3.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여호수아의 기도

본문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이성 정탐을 위해 보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르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라고,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마소서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기적의 승리로 우쭐하는 마음에 교만으로 삼천 명쯤으로 쳐들어가게 했다가 삼십육 인쯤 전사자를 내고 도망쳐 오기 바쁘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의식 속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계속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의식적 신앙심(意識的 信仰心)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아간의 범죄행각을 전혀 몰랐던 것이 큰 화근(禍根)이었습니다.

본문 6-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를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죽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했으니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은 참패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심을 보아 산비탈 전투에서 전사하는 모습과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오는 아이성 군대의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답이 서늘하고 전의(戰意)는 상실된 채 불안과 절망에 기진맥진한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같은 참상(慘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같이 참혹(慘酷)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본문 8-9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對敵)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居民)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했으니 범죄한 집단은 멸망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견잡을 수 없이 불안과 근심의 고통으로 절망(絕望)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4. 임마누엘을 위한 수순 지시(指示)

본문 10-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

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聖潔)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대로 제비를 뽑는데 아간의 손에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7:19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한 것은 아간이 이성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아이성 공격 시, 36명을 죽게 한 살인죄와 하나님의 성호와 권위를 능멸한 죄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거역한 죄로 죽을 지경에 몰리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모시게 하여 아간이 짓밟은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켜 드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실토했고 그가 흡쳤던 성물과 개인 소유물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불태워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처형된 것은 그 가족들이 가장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실을 알았으면 서도 심판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자복하고 권하고 회개케 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공범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수 7:24-26).

돌로 쳐 죽게 한 후 화형까지 한 것은 아간과 그의 가족의 죄가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광야 교회에 개인이 지은 죄로 공동체 전체에 연대적 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몸된 교회들에게 절대적인 성결(聖潔)을 강조하심인 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들이 되어 승리와 성공을 보장 받읍시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시설이 화려하게 고급으로 장식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품진 금, 은, 와 투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불살라 제거함으로 백성들이 다시 성결케 되어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대파(大破)하고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매시매사(每時每事)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재확인(再確認)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의 지시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임마누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승리와 성공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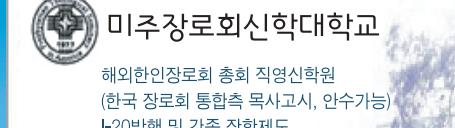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http://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201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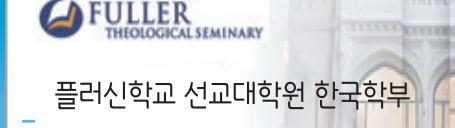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업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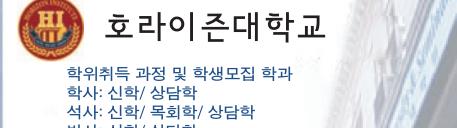
[www.ptsa.edu](http://www.ptsa.edu)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http://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mailto:info@evangelia.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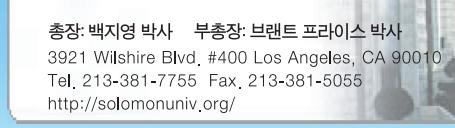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http://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mailto: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http://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AEUI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학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신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풀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 (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유리공과 고무공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유리공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태양빛에 비추어 보면 오만 가지 영롱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뜨리면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집니다. 성질이라도 나서 벽에 집어 던지면 박살이 나서 산산조각으로 훑어집니다.

투박하기 그지없는 고무공도 있습니다. 철부지 아이들 외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무공은 충격에 강합니다. 떨어뜨리면 다시 뛰어 오릅니다. 벽에 힘껏 던지면 던진 만큼 강력하게 반동을 일으키며 되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유리공과 고무공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유리공처럼 내구성이 없습니다. 고난에 취약합니다. 한 번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치면 그 것으로 끝입니다. 금이 가고 깨어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무공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장벽에 부딪치고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을 쳐도 다시 뛰어 오릅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왜 공부해서 성공해야 하는가?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LA에는 약 9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다수는 정신질환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노숙자가 되기도 하며, 때론 아예 온 식구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별히 거울이 되어 비가 오면 노숙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적인 풍족을 누리고 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도시라 할 수 있는 LA에 9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구걸하는 노숙자와 마주칠 때 그들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도울 것인가?

본교 중학생 한글반에서 “말아톤” 영화를 보았다. 너무나 잘 알려진 영화이기에 내용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자폐아의 인간승리를 그린 좋은 영화다. 이 영화를 처음보는 학생들은 “초원”이의 특이한 말과 행동을 보고 처음엔 깔깔대며 웃기만 했다. 자폐증(autism)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학생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특별히 “초원”이 엄마가 쓰러졌을 때, 그리고 초원이가 마라톤에 참여할 때 몇몇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영화가 끝난 후, 필자는 학생들과 자폐증, 부모의 마음, 사회의 반응,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물로

배신을 당해서 종살이를 하고 옥살 이를 하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의 종리가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는 굶주린 이웃나라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도 젊은 날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 도망 다니는 아픔이 있었기에 헛날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복속시킬 수 있는 지혜와 개인한 정신력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무공처럼 단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고상한 유리공보다는 여기저기 부딪칠 준비를 하는 고무공이 되십시오. 부딪치고 내동댕이쳐 질수록 고무공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인생을 순 풍에 둘단 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풍을 헤집고 믿음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표가 될 수 없다. 왜 잘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실천하며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꿈을 갖고 살 수 있다.

이런 꿈은 어떨까? LA의 노숙자를 위해 1만 채의 집을 지어줄 꿈을 가져라. 장애인을 위한 훌륭한 시설을 갖춘 학교를 설립할 꿈을 가져라. 일전 한 푼없는 서민들이 마음대로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지어라. 노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낼 수 있는 양로 복지시설을 만들어라. 고아들이 맑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학교와 숙소를 만들어라.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로 잘 알려진 한국이 오히려 외국 아이들을 입양하여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라.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 나라의 모든 교육, 경제, 정치 시스템을 담당할 꿈을 꾸어라.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갖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자. “명문대학 타령” 보다 어떻게, 어떤 목적을 위해 살 것인지 올바로 가르치는 좋은 부모, 그리고 꿈을 심어주는 선생이 되자. 기적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적을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실천하고 가르치자.

누 명



현 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근래 교포사회의 큰 화제는 이한탁 씨의 사건이다. 딸을 살해하고 방화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 간 긴 세월을 감옥에서 살다 누명을 벗고 풀려나와 하는 말이 “인생을 산 것인지 지옥에 갔다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너무 억울한 일이다.

얼마 전에는 위스콘신 주의 한 마을에 비상이 걸렸다. 낳은 지 얼마 안된 아기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범인을 잡고 보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 동네 건달인 제임스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되었고 낳은 아이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제임스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는 4년이나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였기에 그의 항변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감옥으로 보내졌다. 세월이 흘러 이 여학생은 학교를 졸업했고, 그 사건은 잊혀졌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즉 7년 전 강간을 한 범인이 제임스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강간을 당했다던 여자가 양심 고백을 했다. 7년 전에 사춘기 오빠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갖다 버렸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자 동네 건달인 제임스를 희생양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결국 제임스는

차 번호를 대며 차 있는 곳으로 빨리 나오라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차 옆에 빨간 차가 있고 학교직원이 서 있었다. 이 차를 흥 씨가 주차하며 건드렸느냐 물어서 아니라고 하자 직원이 증인을 불렀다. 두 백인 남자가 나타나서 흥 씨가 주차할 때 뒤로 한 번 나갔다가 다시 앞으로 들어오면서 옆차를 치는 것을 보았단다. 흥 씨는 잘못 봤다고 항변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직원과 차주인은 경찰과 보험회사에 연락하자는 것이다. 흥 씨는 울고 싶었다. 잘못된 증인으로 인해 흥 씨는 불리하게 되었다. 더욱이 얼마 전에 대형 교통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DMV가 다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남의 차를 쳤다고 하면 면허증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보험이 취소되거나 보험료가 왕창 올라갈 것이 뻔하다. 살 길은 빨간 차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흥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누명은 오해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모일 수도 있다. 설사 누명을 입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숙제가 된다. 누명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기독교 의병 통해 ‘안티 크리스천’ 귀환시켜야

제1회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임성택·문성모 박사, 박은조 목사 발제



이 포럼에 참석한 총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이사장 김양재 목사, 회장 정일웅 전 총신대 총장) 주최 제1회 대학총장포럼이 22일 분당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 판교채플 비전홀에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정일웅 회장의 사회로 정효재 박사(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의 기도 후 김양재 목사가 설교했으며, 김재연 박사(칼빈대 총장)가 죽도했다.

설교에서 김 목사는 우리들교회의 ‘T·H·I·N·K’, 즉 죄 고백과 간증(Telling), 거룩한 삶(Holifying), 큐티(Interpreting), 공동체 돌봄(Nursing), 가정 중수(Keeping)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큐티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가는 것으로, 한 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돼야 할 운동”이라며 “저희는 빛지고 환난당한 자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되는 목욕탕 교회”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들교회는 환경과 상황이 다른 수많은 목장들이 있어, 죄 짓고 힘든 이들 누구나 응화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부디 성경이 교과서 되고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령이 스승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부 포럼에서는 목창균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를 좌장으로 임성택 박사(그리스도대 전 총장),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문성모

박사(서울장신대 전 총장)가 발제했으며, 최문자 박사(협성대 전 총장), 조성현 박사(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권용근 박사(영남신대 총장)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임성택 박사는 ‘현 시점에서 안티 크리스천 귀환 운동이 갖는 의미’를 주제로 “지금의 ‘안티 크리스천’들은 ‘안티 불교·유교’이자 지식 계층이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산층이며 민족의 종교와 운명을 결정해 온 이들”이라며 “그러므로 그들이 교회를 퇴장시키는 세력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세력이 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안티 크리스천들의 귀환을 위한 3대 과제로 △신앙 원전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 윤리성 회복 △목회자의 교권, 교회의 특권 내려놓기 △지역별 작고 강한 교회 세우기 등을 꼽으면서 “안티들에게 등을 돌린 채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철저한 회개를 통한 ‘기독교 의병운동’으로 그들을 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은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영광은 로마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얻는 영광”이라며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며 치리를 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의 희망을 위한 과제’를 제목으로 문성모 박사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도대상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터넷 세계를 장악하라’고 제언했다. 문 박사는 “50대 이하 세대들의 정보매체는 인터넷으로, 이를 장악하는 일을 선교의 중요한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앞선 모든 선교 행위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 세계는 오대양 육대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지구이며 선교지”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인재양성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신도 전문인 육성’을 제안했다. 특히 기독 법조인과 과학자, 인문학자와 함께 복음적 신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가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회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재양성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동안, 사회 정계와 법조계와 지식계층과 언론계와 대중매체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반기독교나 좌경화 세력들이 장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선교전략 패러다임 전환으로 ‘교우보를 확보하고 인물을 키우라’고 조언했다.

토론 이후에는 정상운 사무총장(성결대 전 총장)이 인사 및 광고, 신민규 박사(나사렛대 총장)가 폐회기도를 함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은 전·현직 기독 대학총장들이 학문과 지식, 대학경영의 경험을 살려 대학 간 연대와 정보공유 및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나이가 대학 사회의 발전과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이대웅 기자

현재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석사 과정에는 여학생이 121명이 있다. 총회신학원 재학생 가운데에서도 31명이 여성이다. 이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 대부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운영이 사회의 결정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추인하면 그대로 실행된다.

이수민 기자

## 여성 목사 안수 안하는 합동총회, M.Div. 공부도 금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총장 김자연 목사)에서 더 이상 여성들의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과정과 총회신학원 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최근 총신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동광주노회가 제출한 ‘총회 직

영 및 인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석사(M. Div.) 과정은 노회 추천 목사 후보생만 입학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예장 합동총회는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헌의안의 내용대로라면 노회에서 추천하는 목사후보생은 모두 남성뿐이기 때문에 여성은 더 이상 목회학석사 과정에 입학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제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석사 과정에는 여학생이 121명이 있다. 총회신학원 재학생 가운데에서도 31명이 여성이다. 이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 대부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운영이 사회의 결정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추인하면 그대로 실행된다.

이수민 기자

## “청교도 신앙 재조명해 한국교회에 새 전망 제시”

‘2014 서울 퓨리턴 컨퍼런스’ 개최



2014 서울 퓨리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혁파 교회를 위한 제언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충분성을 굳게 신뢰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 강단에서의 외침이 성경이 전부여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여야 한다”며 “예배신학을 교회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킨 교회성장학의 폐단을 버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인 예배가 신앙고백적 교훈과 지침에 따라 실행되는 보편적 교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큐리오스인터내셔널 대표 정성욱 교수(미국 텐버신학교)는 ‘퓨리턴과 에드워즈의 모형론적 해석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는 초기 청교도들의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과 금욕적인 청교도 윤리가 세속화되는 시대에, 미국의 칼빈주의 신앙부흥운동인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을 주도한 인물이다. 청교도신앙을 부흥시켜 독립 직전의 뉴잉글랜드 식민지에 정신적 연대를 구축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약이 신약의 모형인 것처럼, 자연 세계는 영적 세계의 모형’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워즈의 ‘모형론적 저작’은 신적인 것들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들, 모형노트, 그리고 메시아의 모형들이라는 소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에드워즈의 모형론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형론적 해석을 뛰어넘는다는 면에서 모형론적 극대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모형론적/예표론적 성경해석의 길이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신학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 방향 중 하나라고 믿는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 ▲문법적/역사적 해석의 바른 자리와 한계를 확인하는 것 ▲모형론적 해석의 필요성과 중요성과 유익성을 인정하는 것 ▲모형론적 극소주의를 넘어서 모형론적 극대주의로 나아가면서 정당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 ▲모형론적 극대주의의 길을 가되 정통조직신학과 성경적인 교리의 전체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되는 극대주의의 길을 가는 것을 제시했다.

트리니티연구원 심현찬 원장은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에드워즈가 평생을 경주했던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초점성’, ‘하나님 중독성’, ‘하나님 황홀성’의 비전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를 위한

# 통큰통독 활용세미나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는 성경읽기인 90일 통큰통독의 목회적인 적용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큰통독>의 저자인 주해홍 목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전체를 조망하는 40시간 강의>와 소그룹나눔 그리고 실제적 운영방법강의 및 사례발표로 진행됩니다.



강사 | 주해홍 목사

(통큰통독 저자,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원장)

강사 / 저자 주해홍 목사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전공  
보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Pacific Christian College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현 International Hope University)  
경력 / ANC 온누리교회  
성경대학에서 성경지도  
25년간 주정부 감사관으로 근무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강의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 원장

## 통큰통독의 특징

1. 성경을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읽게 합니다.
2. 연대순으로 재정리해서 통독하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3. 읽기표와 읽기짜, 해설, 오디오 CD의 도움으로 90일 통독이 가능합니다.
4. 교회별로 통큰통독 소그룹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거룩한 삶의 관점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통큰통독입니다.

## 대상

성경일독학교를 교회에서 운영하기 원하는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리더(단, 평신도 리더일 경우 담임목사 추천서 필요)

## 일정

2014년 10월 20일(월) — 23일(목)  
월/오후1시~9시, 화~목/오전10시~저녁 9시

## 장소

남가주 성시교회  
730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 등록비

\$150 (9월30일까지 조기등록일 경우 \$120)  
식사 제공. 단, 숙박을 원하시는 경우 1박에 \$60  
(1인실 기준, 2인실의 경우는 \$30)의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 등록인원

선착순 100명

교재 / 주해홍 목사의 <통큰통독> (별도 구매). 참석자들에게는 주해홍 목사의 강의 CD와 인도자를 위한 도표, PPT강의안을 제공해드립니다.

## 신청 및 문의

두란노서원 세미나팀  
213 235 1068 Email / seminar@duranno.us

후원: 미주두란노서원, 미주복음방송, CGNTV,

오렌지카운티목사회, 기독일보



미주두란노 세미나팀

##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 “죽음 준비 및 유언서 쓰기”

아름다운 삶과 죽음 위한 소망세미나 열려



죽음을 준비하며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돋는 세미나가 열렸다.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주최하는 소망교육세미나가 ‘죽음 준비 및 소망유언서 쓰기’라는 주제로 17일(수) 오전 10시 30분 나성동산교회(담임 한 기형)에서 열렸다.

129차 소망교육세미나를 이끈 주혜미 사역부장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법영 흥보대사는 시신기증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최경철 사무총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 모습을 상황극을 통해 연출했다. 박혜수 교육부장은 소망유언서를 통해 사전 의료 지시(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의료 유언)를 결정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길 유언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음을 알렸다.

한 주디 기자

유분자 이사장은 “이미 장수시대가 시작된 오늘날의 현실을 인식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인연장자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는 단체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07년 8월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소망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가치 아래,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웰에이징, 웰다잉’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우물, 유치원 설립을 후원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주소: 17211 Valley View Ave. Cerritos, CA90703  
전화: 562-977-4580  
사이트: [www.somangsociety.org](http://www.somangsociety.org)

한 주디 기자

## “선교사의 삶의 대가란? 축복에 앞서 징계와 연단”

드림교회 장요나 베트남 선교사 초청 특별부흥집회 열어



드림교회가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장요나 선교사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페서디나에 소재한 드림교회에서는 장요나 베트남 선교사를 초청해 특별부흥집회를 19일(금)부터 21일(주일)까지 열었다.

장요나 선교사는 비라카미 선교회 본

부장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비라카미 지역에서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벽산그룹 기획실장을 거쳐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요트경기장 건축을 진행한 유능한 사업가였던 그가, 아내와 자식을 등지고 물질과 명예를 뒤로 한 채 베트남이란 타지로 향하게 된 것은 과로로 쓰러져 10개월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며 얻은 깨달음 때문이다.

2002년 강직성적추염으로 쓰러져 다리를 절미, 눈 한쪽은 시력을 완전히 잃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그는 연단에 오르자마자 타협이나 절충이 불가능한, 선교사의 삶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29-31절을 본문으로 선교사의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다.

‘환난과 박해가 어떤 이유에서 임하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연단하신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니 하나님께서 백 배가 아닌 만 배로 갚아주셨다고 간증했다. 마가복음 말씀과 같이, 가족과 재산을 다 버린 그를 통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교회 217개, 병원 14개, 고아원, 초등학교, 종합대,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졌다. 그는 이것이 대가를 치렀을 때 거둬진 축복이라고 말했

다. 그러면서 지금이 추수의 때, 선교의 때라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평탄한 삶에 안주해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라 경고했다.

또 그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라며 “착각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쓸모없는 당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들렸을 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 1천명을 넘어뜨릴 수 있었다.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는 쓸모없는 것이지만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쓸모없는 나뭇가지도 모세 손에 불들려 흥해바다를 갈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강직성적추염에 걸린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손에 불들려 사용됐기 때문이다. 자아와 고집,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호렙산의 불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없다.”

90년대 초 훌로 베트남으로 건너간 그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유하며 순회사역을 펼쳤으며 오지에 교회와 병원을 세우고 한국 의료봉사단을 초청해 1만여명의 구개구순열 수술을 도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얻었던 깨달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데려 가신다. 여러분의 헌신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정하신다. 내 지위, 내 남편, 자식, 냉장고까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당부했다.

한 주디 기자

# 교회 밀 선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창당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rurh.com](http://gmccrurh.com)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 나눔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화)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5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믿음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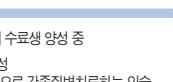


## 한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일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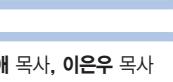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http://www.smkc.us)

주일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30



##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F.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http://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후 10: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 예향선교교회

성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 isaacde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9: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6:00(월-금)



##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후 11:00 오전 6:30(토)



## 청운교회

선교에 흘로, 소진초 정신의 흘로, 바른교회의 흘로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후 11:00 오전 6:00(월-금)



##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한 이민사역체계를 마련하여 이민가정을 지원하고 선교방법을 강화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a href="http://www

# 교회 및 선교소

## LA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세벽기도회 오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비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세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3부예배 오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립나눔터(매주토) 오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세벽기도회(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도입(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회(주)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후 9:30 세벽예배(화-금) 오후 5:30  
3부예배 오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대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965-3443 / F.(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9:15 E.M 2부예배 오후 11:45  
3부예배 오후 11:45 세벽예배(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세벽기도회(화-금) 5:30(화-금)  
2부예배 오후 10:00 금요기도회(토) 6:00(토)  
3부예배 오후 11:45 수요예배(주)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00 **안병권** 담임목사  
목요예배 오후 7:30분 영어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2:00

주일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310)986-9797 ganachurch.hompe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세벽기도회(화-금) 5:15(화-금)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부동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 모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세벽기도회(화-금) 5:15(화-금)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유아부동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기대연 모전 10:20  
**박성규** 담임목사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화-금) 5: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5:3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5: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금) 5:3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화-금)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5:30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애부예배(화-금)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Youth 11:3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1:30(EM청년) 수요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애부예배(화-금)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Youth 11:3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후 5:30  
4부예배 오후 1:30(EM청년) 수요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www.torrencegc.org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화-금)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부) 새벽예배(화-금)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화-금)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화-금) 8: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토 오후 5:30  
3부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5:30  
스모일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한국어 오전 10시(월-수) 금요찬양예배(화-금) 8:00  
오후 12:00(본분)

최호년 담임목사  
세벽기도회(화-금) 5:30  
오후 6:00(본분)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도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예배(화-금) 11:20 영어예배(화-금) 10:00  
금요예배(화-금) 8:00 새벽예배(화-금) 5:30  
6:00(토)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10:00 / 11: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 Rinaldi St., Norridge, CA 91326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10:00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2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체플 Vision Chapel 주일예배(화-금) 10:00  
12631 E. Imperial Highway #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곽혁 담임목사  
세벽예배 월-금 5:30  
토 6:00(토)

온예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세벽예배 월-금 5:30  
토 6:00(토)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 뉴욕 한울림교회 김원재 담임목사 위임식



한울림교회 김원재 담임목사 위임식에서 순서를 맡은 노회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울림교회 김원재 목사 담임목사 위임식이 14일 오후 5시 한울림교회 대예배실에서 미국장로교 동부한미노회 주관으로 열렸다.

'한울림'은 '하늘의 울림이 하나의 울림이 된다'는 뜻으로, '뉴욕영광장로교회'와 '꿈이있는교회'가 통합한 이후 새롭게 출발하며 정해진 교회의 이름이다. 뉴욕영광장로교회는 박태성 목사의 후임으로 꿈이있는교회 김원재 목사를 청빙했고 양 교회는 통합한 이후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다.

김원재 목사는 이날 위임식 답사를 통해 "이 곳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데 모세와 같이 두려운 마음, 이사야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다"면서 "이 자리가 기쁘게 섬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기야 기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원재 목사는 "이 위임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만 오늘 한 성도의 편지를 통해서 더욱 확고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며 "지난 한 주간의 십일조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봉투에 함께 담겨졌던 편지에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써 있었다. 이 편지 속에 있는 사랑과 기도를 보면서 부르심을 재확인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성도들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성도들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충심으로 고백한다"고 말해 감동을 줬다.

이날 1부 예배는 김형규 목사 인도로

빈상석 목사 기도, 박영숙 장로 성경봉독, 한울림교회 찬양대 찬양, 이충남 목사 설교, 김형석 목사 봉헌기도 등의 순서로 드렸으며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노회장 남후남 장로의 집례로 조광한 장로 위임목사 추천, 권형덕 목사 위임목사 서약 및 교우들 서약, 위임기도 및 위임선포, 김형규 목사 권면, 이문희 장로 축사, 김은희 집사 축가, 김원재 목사 답사, 조병기 장로 환영, 안창의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충남 목사는 '내 양을 먹이라' (요 21:15-17)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데,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한다"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가 되어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면을 맡은 김형규 목사는 "요즘 한인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원재 목사는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김원재 목사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목회자를 한울림교회에 부르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확고히 갖고 뉴욕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회자와 교회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도들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시기 바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귀한 종이 될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대원 기자

## “르완다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 DCMi 선교회 르완다 위한 콘서트 개최

DCMi(David Chung Ministries International 대표 정태희 목사) 선교회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대규모 복음 전도대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DCMi 선교회는 지난 4년 간 매년 세 차례씩 르완다를 방문해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 개발 사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복음 전도대회는 르완다와 콩고 접경지역인 기세니 지역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DCMi는 이번 전도 대회에서 연인원 6만 명 참석, 1200명의 상담자 훈련, 1500여 명의 영혼들을 지역 교회로 연결시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번 전도대회를 통해 르완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누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워싱턴주 한인교회와 일본인교회, 세계 선교 위해 하나 돼

## 제 71차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일본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재패니스 인터내셔널 침례교회 마사오미 다케우치 목사

과거 '가깝고도 멀 나라이'로 불렸던 한 국과 일본이 복음과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가 됐다.

워싱턴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선포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대표 황선규 목사) 제 71 차 정기 기도성회에서다.

지난 18일 재패니스 인터내셔널 침례교회(담임 마사오미 다케우치 목사)에서 열린 기도성회에는 미주 한·일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했다.

다케우치 목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한국과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고, 이 하나님을 가지고 미국과 세계 전 지역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케우치 목사는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일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한국 교회와 같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원한다"고 했다.

기도회 설교는 김창명 목사(타코마 신광교회)가 "만남"(사도행전 8:26-39)

김 브라이언 기자

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김 목사는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미국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과 일본 교회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돋는 후원자를 위해',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자세대 영어권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미국, 한국 등 각 나라와 커뮤니티를 위해', '모든 중병 투병자들을 위해' 등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마사오미 다케우치 목사, 박요한 목사(웨드럴웨이 등대교회), 강태우 목사(시애틀 순복음교회), 김상수 목사(웨드럴웨이 은광교회)가 각 기도제목을 놓고 인도했으며, 김승희 목사(타코마 순복음큰빛교회)가 현금 기도를, 원호 목사(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사무총장)가 광고를 전했다. 기도회는 정태근 목사(타코마 삼일교회)의 죽도로 마쳤다.

김 브라이언 기자

## 기억에 남으면서도 목적 정확한 설교, 할 수 있다

## 교회미래연구소 제 12차 정기학술세미나

## '신령한 설교방식' 두 번째 시간 마련해



교회미래연구소 정기학술세미나가 설교의 TOOL을 주제로 열렸다.

애틀랜타 지역 교회미래연구소(소장 이호우 교수) 제12차 정기학술세미나가 22일 밀알선교단(단장 최재희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9차 학술세미나에서 'Spiritual Preaching System(신령한 설교방식)'을 주제로 '설교의 TOO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한 바 있는 김공배 목사(포사이스한인교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이날 더 구체적인 TOOL의 기능과 필요성, 중요성, 활용법, 실제적인 적용 등을 나눴다.

"TOOL이란 설교자가 의도한 목적을 갖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논리체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그는 "소설가는 자신 안에 정해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삼류든 사류든 소설을 뚝딱 써내는데, 설교자들은 TOOL이 없어 설교 한편을 만들기도 힘들어 한다. TOOL은 글의 논리의 불충분성을 채워주고, 통일성을 주며, 설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HOW)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덧붙였다.

TOOL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교의 내용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설교자가 목적하는 바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박현희 기자

## O.C./열반 지역

##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찬양부 오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찬양부 오전 9:00, 11:00  
한어대한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 박용덕 담임목사

마일새벽예배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하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후 6:00  
봉당

##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김현요 담임목사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 이서 담임목사

금요 Alpha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김현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8:00  
금요공부 저녁 8:00  
봉당

주일예배 오전 8:00, 오전 10:30  
화요일 오후 7시(예시류)  
금요일 오후 7시(예시류 7교회)

## 남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1부 예배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714)285-0619 / E. obchurch7@gmail.com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7:30 (본당)  
2부예배 오전 10:00 (본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체육)

## 김민재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FC체육)  
오후 12:30 (본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30  
4부예배 오후 1:30

##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cpc.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화~금)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 열반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 (949)857-9424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30  
4부예배 오후 1:30

## 열반 친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만으로 균형잡힌 영적구조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천, 생활과 사명을 걸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후 6:00(화~금)  
오후 7:30

지사론 담임목사  
(매월 S.D.F, Power minister)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부 오후 1:30

HQ

山  
參

100% 미국 야생 산삼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한 뿌리 한 뿌리  
정성스럽게 캤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어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림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마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14. 루마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곱게하며 종기를 식혀줌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함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22. 모든 질병의 뻔한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돋아준다
23. 주위를 탐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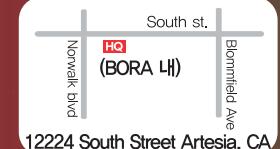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세리토스 직영점

## 나이지리아 에볼라 사태에 교회 성찬식도 비상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교회 성찬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9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나이지리아 가톨릭교회와 성공회교회 지도부가 성직자가 손으로 뺨을 찢어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고, 같은 잔으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기존의 성찬식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인 나이지리아 가디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성찬식을 행하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전통으로 지켜온 성찬식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데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또한 가톨릭과 성공회 지도부 역시 이를 고수하는 교회들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비록 지침은 내렸

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교구 알프레드 마르탱 대주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성찬식을 다른 방식으로 치러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통상적인 방식은 성직자의 손을 통해 성도들에게 뺨이 전달되는 방식이다”며,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막아서는 안된다. 성찬식에 대한 이들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성찬식 방식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대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 교구 존 오나이예칸 대주교는 성찬식이 진행될 동안 서로 약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나이지리아 성공회 수장인 니콜라스 오코 대주교는 같은 잔을 사용하는 대신 개인용 잔을 성찬식 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4월 아래로 서아프리카 지

역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에볼라 바이러스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에볼라로 지금까지 2,6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700명은 모두 지난 1주일 동안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서아프리카 내 에볼라 환자는 5,3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난 3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에볼라 감염자 중 약 318명이 보건 활동가들로 이 중 절반 정도가 사망했다.

한편,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에볼라 감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명이 한 장소에 모이는 교회 예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현지 교계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 오클라호마, 시민 반대에도 사탄 숭배 모임 강행돼

교계 지도자, “우리 사회에 악의 힘 끌어들이는 결과 초래”



오클라호마 시티 시민센터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공공시설을 사탄 숭배자들의 모임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모임의 개최를 막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온 지역 교계는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사탄 숭배자들은 21일 ‘검은 미사’를 오클라호마 시티 시민센터에서 개최했다. 이 센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출석하는 지역 교회들이 예배 장소로 대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모임의 주최자이자 이 지역 사탄 숭배자들의 대표인 애덤 대니얼스는 ‘검은 미사’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가톨릭 미사와 비슷하다. 다만 참석자들이 하나님 대신 사탄을 숭배한다는 것만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은 미사’는 오클라호마 시티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사탄 숭배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앞서 5월에도 하버드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세터닉 템플(Satanic Temple)’이라는 이름의 사탄 숭배 조직의 후원 아래 개최될 뻔 했으나 지역민들과 학생들, 교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지난 8월 초 시민센터에서 ‘검은 미사’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톨릭 교계가 주도해 시민들 가운데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총 21만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국은 사탄 숭배자들에게 시민센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강혜진 기자

오클라호마 시티 가톨릭 지도자인 폴 코클리 대주교는 앞서 지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가톨릭 미사를 조롱하고 모독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행사를 당국에서 나서서 지원한다는 데에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검은 미사’는 가톨릭 교인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신성한 신앙에 대한 왜곡이자 공격이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 주 보수 주민단체인 전통가정재산보호를 위한 미국인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Defense of Tradition, Family and Property)의 존 릿치 대표도 “검은 미사”는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가장 추악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가톨릭 미사에 도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서명한 청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시민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악마 숭배적인 ‘검은 미사’를 강력히 거부한다. 당국에 전 세계 10여 가톨릭 교인들과 우리 시의 20만 가톨릭 교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미국인들을 모독하는 이 집회를 취소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강혜진 기자

## 아베디니 목사 복역 2주년

### 30개 국가에서 기도회

“그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교인들의 대표자”



사에드 아베디니 목사와 그의 두 자녀들 ©미국법과정의센터 (ACLJ)

오는 26일은 사에드 아베디니 목사가 이란에서 복역 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이

에 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30개 국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란계 미국인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아베디니 목사는 이란에서 고아들을 돋는 사역을 펼치던 중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전 세계 수많은 교인들은 그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아베디니 목사의 아내인 나그메 아베디니는 “아이들과 나는 그가 안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 우리 가족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 때다”고 말했다.

나그메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내 소망은 오는 26일 수많은 교인들이 그를 위해 모일 때 미국과 세계 정부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종교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란 정부에 남편의 석방을 촉구해 주는 것이다”고도 당부했다.

아베디니 목사 석방 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법과정의 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는 “아베디니 목사가 이란행 비행기를 탄 것은 2년여 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며, “(그가 갇힌 뒤로) 성탄절이 두 번이나 지났다. 그는 자

손현정 기자

# 2015년 달력 할인행사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9월19일 까지 마감합니다.

빨리 주문 하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디자인의 달력을 준비하세요.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탑미디어에서 2015년 달력제작으로 귀 교회와 단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할인 품목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서 양질의 달력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단체위에 더욱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www.topmediausa.com](http://www.topmediausa.com)

다양한 디자인 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벽걸이형 \$ 2.75 부터 (100 Min)



탁상용 \$ 3.00 부터  
(100 Min)



차량용



• 달력뿐 아니라 목회와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미디어용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 설교, 음악시디, 세미나, 신학교교재용 오디오북, 전도/홍보용 물티슈 각종 인쇄(명함, 카달로그, 주보, 현금봉투, 각종 포스터, 현수막)  
교회, 단체 로고 디자인, 실내외 차량용 사인, 티셔츠, 수건인쇄, 각종 판촉물)

**TOPMEDIAUSA.COM** • Call : 323.265.0244 • 3170 East 11th St. LA, CA 90023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 목회학 박사과정

갈등, 치유, 변화를 위한 실천신학

Doctor of Ministry (D.Min.)

Practical Theology of Healing, Reconciliation and Transformation in Korean Contexts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미국에서 최초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만들고 목회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신학대학교입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학력인증기관인 “서부대학 기관협회”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 Colleges)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학력을 인정하는 기구인 “북미신학대학 교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로부터 여러가지 심사와 검증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은 우수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목회학 박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적인 두 곳의 학력인증 기관에서 학력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 학사과정, 교수진,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클레어몬트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통합적 상황분석을 강조함으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속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또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학위 과정은 학생들에게 갈등과 치유에 대한 비평적이며 조직적인 이해, 이론과 실천의 접촉점에 대한 비평적 고찰, 임상과 신학의 통합된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도울 것입니다.



### 입학설명회

**날짜:** 2014년 10월 30일 (목) 오전 10:30 - 12:00

**장소:** LA복음연합감리교회

1200 S. Manhattan Pl. Los Angeles, CA 90019

Office: 323.641.0691 (영국구원)

담임: 이영성 목사

**문의 :** 이효주목사 (973-713-3009)

### 입학원서마감일

**2015년 1월 입학 :** 2014년 9월 1일까지

**2015년 5월 입학 :** 2015년 2월 1일까지

### 입학조건

- M. Div. 학위나 Th. M.
- 각 학위 성적 (GPA) 3.25 이상 선호
- M. Div. 나 Th. M. 학위 취득 후 수년의 Full-Time 목회경력
- 본 과정은 한인 교수가 강의하거나 미국인 교수와 한인 교수가 함께 강의하기 때문에 토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기타

- 수업료: 학점당 미화 600달러, 2014년 5월 기준 (3학기 동안 24학점 + 논문4학점)
  -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는 모든 여행비용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
  -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는 학과과정을 마친 후 교단에서 수여하는 “목회최고지도자과정” 증서를 받습니다.
  - 아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on-line으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http://www.cst.edu/admission/apply-now/>

For more Information : [www.cst.edu](http://www.cst.edu)

이효주 목사 (Associate Director)

koreadmin@cst.edu / Tel. 1-973-713-3009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④ 교황무오교리

## 교황이 무오(無誤)하다고 믿는 로마가톨릭교회(3)

## 5. 세계교회협의회의 태도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론과 교황무오교리를 사실상 인정해 준다. 신앙부 차별주의와 래티튜디나리안주의(latitudinarianism)를 표방하면서, 한 통 안에 물과 기름을 함께 담으려 한다. '오직 성경' 원리와 기타 중요한 개신교회 신앙의 정박자를 버리고,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회론 교리를 묵인한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개신교 사이에 가로놓인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WCC는 로마와 가시적 교회일치를 꾀할 목적으로 전통론(1963, 몬트리올보고서)을 만들었다. 기독교 전체를 일컫는 '전통'을 강조하면서, 성경과 전통이 하나님의 샘, 같은 원천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 하나님의 복음 전통(Tradition)에서 성경과 여러 가지 유형의 교회 전통들(traditions)이 나왔다. 계시의 유일의 원천인 하나님의 복음전통(Tradition) 또는 기독교 전체로서의 전통에서 성경과 전통들 곧 각 교회, 교회 전통들(traditions)이 유래했다.

새 세대대로 전달되는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전통(대문자 T)'과 그 하나님의 전통에 대한 교회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의미하는 '전통들(소문자 t)'은 구분된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통(the Tradition of his revelation)'을 등장시켰고, 거기서 여러 유형의 교회들, 교회 전통들이 파생했다고 한다(WCC, Scripture, Tradition and Traditions, 1963, para.42, 42-63 참고).

WCC 전통론에 따르면, 16세기 종교개혁기로부터 쟁점이 되어 온 성경과 전통의 관계, 그리고 그것

에서 발견되는 모순과 불일치는 하나님의 주변적인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과제는 성경 가르침이 아니라 기독교 안의 전통들(소문자 t)과 유일한 복음전통(대문자 T)을 구별하고 이 두 가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WCC 전통론을 작성한 신앙직제 위원회 몬트리올대회는 로마가톨릭교회가 파송한 신학자들을 옵서버로 참가시켰다. 이들은 WCC 전통론 고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계시현장'은 기존의 두 원천 이론과 달리 전통과 성경이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솟아나와 …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계시현장 제9항)"고 말한다.

WCC 전통론은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교회라는 인간 제도의 전통(소문자 t)과 대등한 위치에 둘으로써, 특별계시 기록인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종교개혁 운동이 강조한 '오직 성경' 원리를 버린다.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는 것도 상대적인 무엇으로 해석하게 한다. 로마가톨릭교회와 그 교회의 전통-성전(聖傳)이 유효하다고 인정해 준다. 교황무오교리, 사도직 계승교리, 교황 수위권교리, 계급주의 교회제도, 교황 중심적, 법률적, 폐권주의적 전통을 묵인·인정한다. 가경들을 정경에 포함시킴을 비판할 수 없게 한다. 로마가톨릭교회



최덕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만이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가졌다는 주장을 묵인한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성경과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고백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개신교회와 로마가톨릭교회의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을 방해한다.

로마가톨릭교회는 WCC에 일부 가담하면서도, 교회 교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교황권 권위에 추호의 의구심도 표출하지 않으며, 로마의 교리 규정에서 한 걸음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 로마가 기존의 교리를 양보, 포기하면 교황무오교리가 옳지 않을을 입증하는 격이 된다. 로마가톨릭교회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의 베�품목을 빼버리는 행위가 된다.

## 6. 프로테스탄트 정신

교황무오교리 논의의 신학적 핵심 요지는 교회, 교황, 공의회의 결정, 가르침, 교도권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위배될 때 신자는 이에 항의(protest),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로마는 인간인 교황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가두고 신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할 의무만을 강요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를 상대로 목숨을 건 혈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까닭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교

회, 공의회,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많은 오류를 범해 왔으며, 성경과 상반되는 결정, 지시, 교리를 공표할 경우 기독인은 교회, 교황, 공의회에 항의할 수 있다는 것 이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개신교회도 예외

가 아니다. 나치독일 치하에서 독일 국가교회는 '우상숭배'를 했다. 당대 독일의 유명한 지식인, 신학자, 목사,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히틀러 만세'를 외쳤다. 독일교회는 살인 행진에 열성적으로 동참했다. 일제 말기 한국장로교회도 우상숭배를 행하기로 결정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우상숭배를 할 것을 공적으로 결정한 예는 전무후무하다. 교회는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을 출교시켰다.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까닭으로 그의 목사직을 파면했다.

예장 고신교단이 가진 교회론적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친 것에 상반되는 교리·고백·실천을 교회가 명했을 때 기독인은 이에 항거(protest)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필자의 <한국교회 친일과 전통(지식산업사, 2000)>이 상론한다. 네덜란드개혁교회 현장 제31조는 중세기적 교권과 사악한 교회로부터의 해방 또는 자유(liberation)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교황무오교리는 인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황은 인간이며 신성불가침한 존재가 아니다. 비록 성령이 함께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지만, 교회는 인간 집단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교회·교황·공의회는 수많은 오류를 범해왔다. 기독교 역사가 '범죄사'로 규정하는 교회사가도 있다. 한때 로마가톨릭교회 신

〈계속〉

## 바람! 바람! 바람!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무척이나 덥더니 오늘 아침은 마치 가을 아침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날씨에 어지간히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날씨가 이렇게 바뀌는데는 아직도 적응하기가 어렵다.

금년은 9월 레이버데이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몰아쳤다. 태양의 도시인 캘리포니아의 햇빛의 위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문득 성경을 읽다가 사막의 뜨거

운 햇빛을 폭양(曝陽) 즉 폭력적인 햇빛이라고 부르는 말이 실감이 났다.

하루 종일 폭양에 달구워진 땅이 열을 푹푹 뿐어내는 밤에, 바람기 하나 없는 무풍에, 진땀을 줄줄 흘리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려던 날씨가 오늘 아침은 어찌 된 일인지 전혀 판판이다.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걷는데 어찌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지 나도 모르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하는 옛 노래가 생각났다.

그러면서 이 시원한 가을 바람과 더불어 이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영풍 즉 영적인 바람이 불어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더 뜨거워도 좋으니 부흥의 열풍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 교회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으면 좋겠다. 예배 때마다 뜨거운 감격이 있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드리는 기도마다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쏟아지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봇물 터진듯 성도들의 가슴마다 가득해서 찬양할 때마다 온 교회가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다.

이런 뜨거운 은혜와 축복, 부흥과 성장은, 이를 열망하며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바람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 이 가을에 이런 은혜의 바람,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보지 않으시겠는가?

#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1¢

복사기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http://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교 고전 순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 인간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초대교회 교부(教父)들 중 최후의 인물이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의 생애는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고도 극적인 회심에 의해 시작됐다. 그 체험은 그의 나머지 생애와 사상을 결정해 주었다. 〈고백록〉에서 그는 자신의 삶은 날과 회심을 회상하면서 그 체험의 지속적인 영향을 증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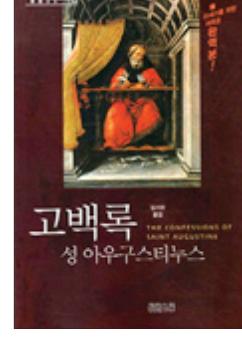
물론 고백록은 단순한 자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웅장한 찬양송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죄악뿐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찬양인 것이다. 그는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을, 성경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기록하였다.

고백록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돼 역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제1권부터 9권까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으로, 인간의 죄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관용에 관한 내용이다. 제10권은 두 번째 부분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현재 상태를 묘사해 주

고 있다. 고백록을 기록할 당시, 주교로서 그는 양심에 대한 문제를 술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11권부터 13권까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인생의 궁극적 의미에 관해 미래지향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은 실제적으로 창세기 서론에 관한 명상이다.

이 책을 처음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1권 부분의 솔직한 표현과 고백에 즉각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되며, 제2권 부분의 친숙한 개인적인 명상과 회고에 몰입하게 되고, 제3권 부분의 장대한 사상과 통찰에 감명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책의 각 부분들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며, 동시에 전반적으로 일치된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단편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인적인 인생담에 얹힌 시련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삶의 여정이라는 교훈을 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의 정욕에 얹매여 있던 31살 때의 청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때 내 죄악은 점점 증가되기만 했습니다. 내 정부는 내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나의 결혼에 방해가



고백록 |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스챤다이제스트 | 436쪽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 대한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남자를 알지 않기로 서원하면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남겨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을 느끼며 여자보다도 약해져서 내가 구하던 정식 신부를 맞기도 전에, 즉 2년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정부를 얻었습니다. 나는 정욕의 노에 염기 때문입니다. 병든 내 영혼은 더욱 더 굽어 가기만 했습니다(IV. xv. 25).”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에 북아프리카에는 마니교라는 종교가 번창하고 있었다. 마니교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은 구약의 조물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매력을 느낀 나머지, 9년 동안이나 이 이단 종교의 일원으로 남아 있었다.

〈고백록〉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가 가입한 마니교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후에 밀라노에 간 그는 그 곳에서 암브로시우스(Ambrosius) 감독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386년 8월 어느 날, 그는 밀라노 그의 집 정원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만 낭비해야 합니까?”라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그때 그 부르짖음에 대해 답변이라도 하듯, 어린아이들의 노래가 들려 왔다. 그 노래 가사는 ‘집어서 읽어 보아라(라틴어로는 Tolle lege)’였다.

그는 로마서 13장에서 눈에 띠는 말씀 몇 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

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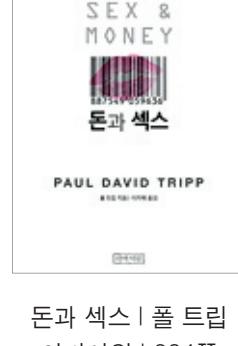
그의 회심은 이렇게 이뤄졌다. 성경책을 뒤고 나서 그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 위대한 그리스도교 성자의 생생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고백록을 읽을 수 없다. 유명한 현대 문학가들이 이 거룩한 주교의 전기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그에게 많은 감명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자성적으로 분석한 업적은 후기 그리스도교 심리학의 초석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의 진리에 대한 사랑이다. 〈고백록〉은 한 인간의 진리 추구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종류의 고백적 글은 서구 역사에서 최초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독교 문학에서도 최초의 고백 문학에 속하는 이 작품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 때까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함을 증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하나님 주신 ‘성(性)과 돈’ , 성속(聖俗)의 이원론 극복을!



돈과 섹스 | 폴 트립  
아바서원 | 304쪽

났지만, 성(性)과 돈에 대한 세상의 욕망은 훨씬 적나라해졌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에 대해 시류를 좇아가기 바쁘거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로 치부하고 있다.

〈목회, 위험한 소명〉,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등을 쓴, 상담학 교수인 저자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과 돈’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 둘은 그 자체로서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성과 돈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요 그분의 전적인 주관 아래 존재하므로, 우리는 당황하거나 겁내지 말고 존중과 경외로 그것들에 접근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으로 인하여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 속에 성(性)의쾌락을 두셨다. 하지만 지금은 성이 사랑을 대체해 버렸고, 사랑은 성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돈으로

사랑을 사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부(富)의 뿌리로 칭송받는다.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성(聖)과 속(俗)으로 나누 행동하려는 이분법적 사고가 ‘위험’해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현실적인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도움을 찾게 된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기에,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성과 돈도 ‘영적’이며,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속의 세계에서 이 둘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켰던 바로 그 십자가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쾌락을 즐기면서, 구속의 영원한 즐거움도 함께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 돈의 문제는 단순히 주변 문화의 유혹에 맞서 싸우거나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상 탓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저자는 이처럼 성과 돈에 대한 시시콜콜한 행동 지침이나 금욕주의 실천 방법을 전파하는 대신, 우리의 행동을 지시하고 조성하는 마음과 영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통해 ‘근본적’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난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은, 예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며 최후의 원수가 굴복하기까지 그 나라는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모든 요소가 그렇겠지만) 성(性)에 대해 “성적 순결을 지키려는 싸움에서는 성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방황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며 “엉뚱한 데서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는 모든 죄인의 성향이 문제”라고 핵심을 지적해 준다.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문제이다.

이대웅 기자

##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갑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베티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갑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티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갑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베티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세차 리스 중고차 매매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제1교회자 승문기 박사  
UCLA와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민과 크롬으로  
의약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시험  
결과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이번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민이 부족하면  
췌장비타민과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비타민과의 기능 복원을 개선제  
PRO-Z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 당뇨병으로 개선제입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던 그쳤으나  
PRO-Z는 당뇨에 인슐린 분비를 확장해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으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침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 지긋지긋한 당뇨병 터울출

평생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보다 같은 혈당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단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기능 개선제

PRO-Z

**TONER 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amp;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증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K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NER 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TONER SUM**

## “설교는 변화 일으키는 작업… 뼈 깎는 노력에서 권위 나와”

한목협, ‘설교 표절, 왜 심각한 문제인가?’ 열린 대화마당



한국교회의 설교 표절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는 대화마당이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이하 한목협) 제27차 열린 대화마당 ‘설교 표절, 왜 심각한 문제인가?’가 2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마당은 한목협이 교회 재정 투명성과 담임목사 대물림 근절 등을 주장하면서 자정운동을 펼치기 위해 상설기구로 조직한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손인웅 목사, 이하 위원회)에서 기획했다.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서현교회)는 환영인사를 통해 “목회자 윤리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고 그 중 하나가 표절 문제라는데, 논문 표절보다 심각한 문제가 설교자들의 표절”이라며 “설교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변민하는 가운데 영훈의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제 것인 양 쉽게 그대로 갖고 오는 비윤리적 행태가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속에 적지 않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런 문제 의식 아래,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결단하고, 설교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설교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너무 쉽게 하려 해선 안 돼

위원장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는 자기고백부터 시작했다. 손 목사는 “50여년간 설교를 해 왔는데, 1만 회 정도 한 것 같다”며 “1만 번이나 어떻게 뭘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급할 때는 표절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목사는 “목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설교로, 그의 인격과 영성의 모든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나타나니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며 “글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

는 ‘설교가 사람이다’, ‘설교가 설교자다’고 하고 싶다”고 했다.

손인웅 목사는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감동을 전해야 하며, 지(知)적·정(情)적 면 뿐 아니라 영훈을 움직이고 각성과 깨달음도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신의 메시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한국교회 문제도 강단에서 외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며 “살 수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교인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인웅 목사는 “설교는 치열하게 싸우면서 준비해야지, 너무 쉽게 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인터넷이나 다른 설교집에서 짜깁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책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써야 하고, 너무 유크부리지 말고 살 수 있는 만큼, 설교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살아있는 설교”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교 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는 목회자는 없고, 부끄러움 없이 설교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지 않다”며 “설교 한 대로 살 수 있는, 삶과 말씀의 과정이 좁혀지는 데서 감동과 힘과 변화가 있다”고 했다.

또 “설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작업으로, 1만 번 설교해도 교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실패”라며 “생생한 고뇌 속에 나오는 창작이 있어야 한다. 뼈를 깎는 노력에서 권위가 나온다. 말씀 선포자로서 권위를 갖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오늘 자리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설교 표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불경이자 불충

이후 위원회의 서기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가 기조발제, 한진환 목사(서울서문교회)와 안진섭

목사(새누리2교회)가 발제를 각각 진행했다.

이후에는 한목협 상임총무 이성구 목사(시온성교회)를 좌장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정주채 목사는 ‘설교 표절, 왜 심각한 문제인가?’를 제목으로 “많은 목사들이 다른 목사들의 설교를 예

사로 벼겨 설교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가 교인들에게 발각되어 교회에서 사면을 당하거나 교회가 분란에 휩싸인 경우들도 있다”며 “어느 대형교회 담임목사도 설교 표절이 알려져 설교를 중단하고 몇 개월 동안 근신한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주채 목사는 “설교 표절의 기준과 한계를 정하여 분명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설교자의 인격적 주체성이 그 시금석이라 생각한다”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선포될 때 설교가 되고, 설교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표절 설교는 설교자 자신의 인격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격과 노력을 통하여 나온 것을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설교하는 거짓 행위”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설교 준비의 바탕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설교 표절의 이유로는 △1주일에 10회 이상 해야 하는 등 설교 횟수가 너무 많아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서 △인격적 기초인 정지함이 없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설교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 자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그는 “설교 표절은 계으름과 부정직에서 나오는 도둑질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불경이자 불충”이라며 “설교 표절은 설교자 자신과 나아가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훈계하게 만들고, 이렇듯 말씀 사역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대사명 성취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처음부터 베끼기로 작정하고 시작?  
명백한 도용!

한진환 목사는 ‘설교 표절, 무엇



정주채 목사



한진환 목사

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설교 표절의 부당성과 함께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펼쳐놓았다.

한 목사는 설교 표절 기준

으로 △의도성 △반복성 △위선성 등을 들었다.

설교 표절이 왜 잘못

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현재

적 메시지를 가로막고 △설교자의

영훈을 고사시키며 △교회를 병들

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준에서 의도성은 ‘처음부터 베

끼기로 작심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

람의 자료로부터 받은 영향을 무의

식 중에 표출했는가’, 반복성은 ‘그

행위가 단회적인가, 반복적인가?

그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행위였는가,

아니면 습관적인가?’, 위선성은 ‘남

의 설교를 기술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거나, 남의 예화를 편집해

서 마치 자신의 체험인 양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이 각각의 기준이다.

특히 의도성에 대해 “우리 주위

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건서

적들, 주석들, 강해서적들이 나돌고,

이를 접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

이디어들, 영감들, 힘 있는 문구들

이 끊임없이 목사 자신의 사고 속에

축적된다”며 “그런 자료들이 설교

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표절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영향으로 어

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더라도 자신이 ‘오리지널’이 아니

라는 것만 밝히면 윤리적 책임은 다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처음

부터 베끼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남의

설교를 통째로 가져오거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설교 표절 문제는 목

사 개인의 양식에 의존하는 개인 윤

리 성격이 강하므로, 외부적 제도나

환경 변화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

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설교

작성에 대한 전반적 교육 강화 △

과중한 설교사역에 대한 제고 △목

회 성공주의 신드롬 극복 △설교사

역에 목숨 걸기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첫 번째 문제에 대해 그는 “신학

교 시절부터 설교 작성 윤리에 대

한 교육부터, 본문 선택과 주석, 아

웃라인 작성 등 설교 준비의 전 과

정을 스텝별로 세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진섭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설교 표절’이라는 발표에서 타인의 설교를 표절하는 이유

로 △저작권

에 대한 인식 부족 △설교 작성에 대한 준비 미비 △설교에 대한 신학의 부재 △영성 깊은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등을 열거했다.

안 목사는 “발표 준비를 위해 유료 설교 제공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제가 했던 설교들을 허락도 받지 않고 제공하고 있더라”고 밝혔다. 또 “전도사 시절 어떤 집회에 갔는데, 초청 강사의 설교가 당시 유명 설교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이었다”며 “심지어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라는 말도 했는데, 그 말조차 그 유명 설교자의 말을 따라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대안 중 눈에 띈 것은 신학대학원의 교육방식 전환이었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좋은 설교자로 길러내기 위해 성서신학·조직신학·역사신학·실천신학 등 다양한 교수진들이 함께 가르치는 ‘팀 티칭’이나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는 현역 목회자들을 정식 교수로 초빙해 전문 설교학자들과 함께

가르치게 하는 방법, 교회음악대학원의 일대일 레슨처럼 교수들이 학생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도제식 교육’ 등이 ‘근원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대웅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장수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간경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경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틀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깁지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빠뚤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빼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둑!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김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간경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탕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전글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된 분

▶ 자긋자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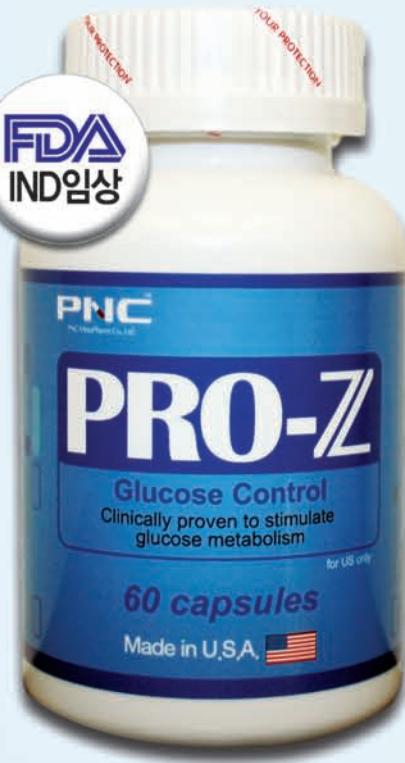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3523 W. Olympic Blve. #102  
Los Angeles, CA 90019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Special  
Price

1병 \$76 3병 \$200 6병 \$372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족,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고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키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고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시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맡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빼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빠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년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사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 열반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전립선이 심해서 회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쟁여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